

# 아라비아반도 NEWSLETTER

## 국가 소개 오만(OMAN)

### 기본정보

- 수도 : 무스카트(Muscat)
- 인 구 : 약 493만명('22, 오만통계정보청)  
※ 오만인 약 287만명, 외국인 약 206만명
- 면 적 : 309,500km<sup>2</sup>(한반도의 1.4배)
- 언 어 : 아랍어(영어 통용)
- 종 교 : 이슬람교(이바디파)
- 정부형태 : 군주제
- 국 왕 :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 1인당 명목GDP : 17,630불(IMF)

자료 출처: 주오만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om-ko/>



오만은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있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오만의 공식 명칭은 오만 술탄국(Sultanate of Oman)이다.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왕(술탄)이 종신토록 다스리고 왕족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왕정국가이다.



오만은 오래된 과거와 첨단 의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휘감아 가린 전통 의상 디쉬다샤(남성복, 주로 흰색)와 아바야(여성복, 주로 검은색)는 여전히 거의 모든 오만 사람들의 일상복과 정장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통이 잘 간직되고 있는 나라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오만에서는 입고 있는 의상만으로도 오만인과 외국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매일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이슬람 모스크의 '아단' 소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시에 들을 수 있다. 정치 체제, 복장, 곳곳의 모스크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려오는 아단 소리는 한국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오만을 더욱

이질적인 곳으로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메마른 사막과 비포장도로가 많은 나라답게 전 세계에서 만든 거의 모든 종류의 사륜구동 승용차들을 오만 국토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사막의 배로 불리면서 과거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날랐던 낙타를 오늘날 사륜구동 승용차들이 대체한 것 같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바야와 디쉬다샤를 입은 운전자들이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 보기 어려운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사륜구동 차량을 운전하며 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또, 이들 손에 들린 최신 스마트폰으로 지속적으로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오만의 이슬람교는 개인의 고백적 신앙이라기보다는 역사를 두고 내려온 전통이고 개인의 삶과 부족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제도 같다.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틀 안에서 국민의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자 공휴일이다. 그중에서 금요일 낮 12시 30분에는 전국의 모든 모스크에 무슬림들이 일시에 정기 모임을 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 이맘의 짧은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 주말마다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반복한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곳의 사람들은 음주가 금지된 지역이다 보니 밤마다 찻집이나, 혹은 거리 한쪽에 돛자리나 의자들을 깔고 앉아 차나 아랍식 커피를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중의 일과를 보낸다. 국가의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모두 국가 설립일이나 국왕의 생일,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와 관련된 축일 등과 연결되어 있다. 오만에서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다. 라마단 금식월에는 기업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수업 시간이 전국의 금식자들을 돕기 위해 조정된다. 이렇듯 삶과 종교가 하나가 된 이들에게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오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슬림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1967년 유전 개발 이후 오만은 산유국이 되었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통해 단기간에 국가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거기에 50년을 통치하다가 2020년 1월에 서거한 술탄 까부스의 선정으로 국민은 함께 국가의 부를 누렸다. 선왕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은 새로운 왕이 취임한 이후에도 가시지 않는다. 국가의 전반적인 공적 행정과 치안은 ROP(Royal Oman Police)라고 불리는 경찰들이 담당한다. ROP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관서, 경찰서, 소방서를 합친 역할을 한다. 강하게 확보된 경찰 공권력으로 밤에 거리를 다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좋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과 실무자의 미숙함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조직적인 부패나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2021년 크리스치너티 투데이는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50개 국가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 중에서 오만은 44번째로 거론되었고, 같은 부족 안에서의 억압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는 오만인이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가족이나 친족 집단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종을 결정한 사람은 가족이나 같은 부족으로부터 소외나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오만에서 사역하는 일꾼의 숫자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다. KWMA와 KRIM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1 한국선교 현황'에서 한국인 선교사는 167개국에 22,210명이 파송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동에 파송된 장기 선교사의 비율은 4.3%로 발표되었다. 또, 2021년 신규 파송 선교사 중에 중동 지역으로 파송된 비율도 4%를 보인다. 여기에서 중동은 통상적으로 아라비아반도와 요르단과 레바논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지역이어서 아라비아반도에 파송된 사역자의 비율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오만은 같은 아라비아반도에 있으면서 유사한 경제 발전의 길을 걸어온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보다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오만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도 이러한 오만의 현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입국했고,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오만의 모습에 놀라워한다. 복음의 불모지면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오만과 아라비아반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 지역으로 몰려오기를 기도한다. 이 땅이 생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푸르른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 반이슬람적인 문화 검열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법과 규제가 완화되어 기독교로의 개종과 타문화 수용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왕권 교체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많은 일꾼이 보안, 비자, 재정 문제들을 겪으며 철수하는 상황인데, 하루속히 상황이 안정되고 선교의 장이 열리게 하소서.
-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외국인 예배 모임과 비밀리에 모이는 현지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담대하심을 허락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케 하소서.
-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 실제적인 회심자와 신실한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만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자료 출처 및 작성자: '마질리스 시브', '오만 지킴이들'